

OTT 드라마 <무빙>의 세계관 구축 방식과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의의

정치훈*

-차 례-

1. OTT 시대의 히어로물
2. OTT 플랫폼에서의 세계관 구축 전략
3.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실체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무빙>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는 특히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OTT 플랫폼에서의 효과적인 세계관 구축 방식을, 두 번째 요인은 전통적인 서구 슈퍼 히어로물과 구분되는 <무빙>의 독특한 정체성인 ‘한국형 히어로물’에 대한 탐구이다. 이 두 요인을 통해 <무빙>이 어떻게 자신만의 장르적 특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관객의 이목을 끌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본고는 한국형 슈퍼 히어로물의 세계관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적합하게 조율되고,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어떻게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한다.

주제어 : OTT, <무빙>, 세계관 구축, 슈퍼 히어로, 한국형 슈퍼 히어로, 가족, MCU

1. OTT 시대의 히어로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 (Over The Top)의 한국진출은 단지 여러 장르의 드라마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형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직접 투자하여 제작되는 '오리지널' 시리즈는 해당 OTT의 특성과 맞닿아 있으며 기존의 TV 드라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¹⁾ 범박하게나마 형식과 내용을 살펴본다면, 형식적으로는 시즌제가 도입되었고,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로맨스, 사극, 범죄, 법정, 의학물과는 달리 판타지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을 선보이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글로벌 OTT 플랫폼이 정착하는 데 <킹덤>과 <오징어 게임>이 크게 기여했다. <킹덤>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최초로 자체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품성으로 한국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고, 넷플릭스는 이를 계기 삼아 한국 드라마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오징어 게임>까지 글로벌 흥행을 이끌어내며 국내 OTT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을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한편²⁾,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이 서비스 중이며 시장 점유를 위해 각자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우 자본을 투자하되 기획자가 충분히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늘려나갔다.

각 플랫폼은 각자의 무기를 지니고 있는 한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
- 1) 백경선, 「OTT 시대 드라마 변화 양상- TV드라마와 OTT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8, 한국극예술학회, 2023.
 - 2) “[2023 대한민국 OTT 대해부] (1) 넷플릭스 독주 속 토종 OTT ‘각축’,” Forbes Korea, 2023년 8월 23일 수정, 2023 접속,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8319>.

‘오리지널’이라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있다. 이는 어떤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곧 이용자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적인 사례를 짚어본다면 앞서 언급한 <오징어 게임>³⁾은 물론,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디즈니 플러스 역시 <무빙>을 통해 이용자가 증가한 바 있다.⁴⁾ 요컨대, OTT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와 같이 특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OTT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매체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시리즈 흥행에 맞춰 제작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웹툰에 대한 주목이 크게 늘었다. 그 이유로는 검증이 이루어진 완성된 서사에 있다. 이용자의 유입은 앞서 언급한 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지에 있다. 즉, 이용자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연속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OTT 플랫폼에서는 이를 ‘시즌제’를 통해 구성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사의 맺고 끊어짐이 분명한 방대한 서사가 요구된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⁵⁾은 오늘날 OTT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활발하게 발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⁶⁾

3) “오징어게임 효과…넷플릭스, 한국 월이용자 1천만명 육박,” 노컷뉴스, 2021년 11월 21일 수정, 2023년 8월 23일 접속,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02>.

4) “500억 대작 ‘무빙’, 효자됐다...‘디즈니플러스’ 일 이용자 14만명 ‘경증,’” 노컷뉴스, 2023년 8월 18일 수정, 2023년 8월 24일 접속,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7>.

5)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에서 웹툰은 원천 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르 전환(Adaptation)과 가로지르기가 용이하며, 장르 간, 미디어 간, 창작과 향유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층 새롭고 적극적인 형태의 향유를 구현하는 웹툰의 특성과 관련된다.(박기수,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12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6, 107쪽 참고)

6) 스튜디오드래곤과 와이랩은 <아일랜드>, <테러맨>, <부활남>, <신석기녀> 등 14개 웹툰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하여 ‘슈퍼스트링’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드라마화하여 한국식 히어로물의 포석을 다지고자 한다. “어벤져스처럼…한국형 히어로물 만든다,” 매일경제, 2021년 6월 10일 수정, 2023년 8월 24일 접속, <https://www.mk.co.kr/news/culture/9906146>.

OTT 플랫폼에서 제작된 웹툰 원작 드라마⁷⁾는 K-드라마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르의 확장에 있다. 그간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비물(<킹덤>)이라던가, SF물(<고요의 밤>)이 제작되면서 장르 선택의 폭이 확장되었다. 무엇보다도 <무빙>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흥행을 통해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냈다. 이전에도 한국 콘텐츠에서 '슈퍼 히어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블과 DC처럼 개별적인 슈퍼 히어로가 한 데 모여 세계관을 이루며 활발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닌, 개별 슈퍼 히어로의 단편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⁸⁾

슈퍼 히어로물의 기준을 마블이나 DC로 잡는다면, 세계관 구축⁹⁾ 및 확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루기 때문에 CG효과는 필수이며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이 흥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 사례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마블 시네마를 놓고 보더라도 <어벤져스>(2012)까지 이르는 데 <아이언맨>(2008), <인크레더블 헐크>(2008), <아이언맨>(2010), <토르: 천둥의 신>(2011), <퍼스트 어벤져>(2011)를 거쳐야 했다. OTT 플랫폼은 '시즌'이라는 형식을 통해 영화가 아닌 드라마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8월 9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무빙>이 공개되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흥행에도 성공하며 '한국형 슈퍼 히어로'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 히어로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냈다. 본고에서는 <무빙>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OTT 플

7) 웹툰 원작 드라마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작된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연재한 윤재호의 <미생>을 원작으로 tvN에서 드라마 <미생>을 비롯하여 <모범택시>, <경이로운 소문>, <오늘도 사랑스럽개>, <이태원 클라쓰>와 같이 공중파, 케이블에서도 웹툰 원작 드라마가 제작 및 방영했다.

8) 송성욱,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고소설연구』 4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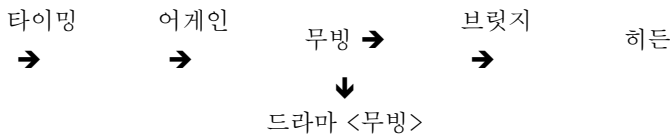
9) 세계관이란 용어는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나 틀을 일컫지만,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맥락에서 매체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더불어 빠르게 확장중인 콘텐츠 프랜차이즈화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의미한다.(김명진, 「디지털시대 서사와 매체의 융합-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89쪽.)

랫폼에서의 세계관 구축 방식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슈퍼 히어로’와는 변별적인 <무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기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보고자 한다.

2. OTT 플랫폼에서의 세계관 구축 전략

강풀 웹툰에서는 <타이밍>(2005), <어게인>(2009), <무빙>(2015), <브릿지>(2017) 순서대로 연재되었으며 각 작품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한다. 각 작품 간의 연계를 살펴보면, <어게인>은 <타이밍>의 스펀오프로 두 작품은 친연성이 높다. ‘타이밍’과 ‘어게인’이라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두 작품은 ‘시간능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어지는 세 번째 <무빙>은 앞의 두 작품과는 결을 달리한다. 무빙은 ‘신체능력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인물들로 서사가 진행된다. 앞의 두 작품과 별개의 작품으로 그려지는 듯 보이지만, <타이밍>과 <어게인>에 등장했던 ‘김영탁’이 <무빙>에 등장하면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다음 연재된 <브릿지>는 ‘시간능력자’ 인물과 ‘신체능력자’ 인물 모두 서사의 중심에 놓이면서 ‘강풀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미스터리 심리 셉링물		
아파트 어게인	타이밍 조명가게 액션 만화	이웃사람
무빙	브릿지	히든(예정)



<표 1> 강풀 원작 웹툰 세계관

드라마에서는 여러 작품 중에서 <타이밍>이 아닌, 세 번째 작품인 <무빙>을 우선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곧 초능력자 세계관의 중심축의 이동을 내포하는데 즉, '시각능력자'가 아닌 '신체능력자'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풀 작가가 제시한 작품 분류를 놓고 볼 때, <타이밍>과 <어게인>은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또한 개별 작품 간 연계를 보여준다. 특히 <아파트>에서 등장하는 형사 '양형식'은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에 해당되는 <타이밍>과 <어게인>뿐만 아니라 <이웃사람>, <조명가게>, <브릿지> 등 작품 전반에 등장하면서 '강풀 세계관'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무빙>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장르의 전환과 관련된다. 즉, <무빙>을 기점으로 '액션 만화'임을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미스터리' 요소는 제거된다. 그에 따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양형식은 미스터리 장르 세계관의 중심축으로 놓였으나, '액션 만화' 장르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역할 역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풀 웹툰이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에서 '액션 만화'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세계관이 하나로 묶이는 <브릿지> 역시 '액션 만화'의 장르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드라마 제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웹툰의 연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성을 달리하여 '액션 만화'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드라마 <무빙>은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미스터리'에서 '액션'으로의 전환을 그리기보다는 '액션'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새로운 기점을 예고한다.

원작 웹툰 중에서 <무빙>을 가장 먼저 선보인 것과 더불어 이를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 맞춘 점은 앞으로 드라마를 통해 세계관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블 시네마 <어벤져스>를 보면 알 수 있듯, 인물과 세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와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서사가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비로소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긴밀하게 묶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세계관이 확장된다. 요컨대,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에 비추어 <무빙>을 살펴본다면, 디즈

니 플러스 플랫폼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회차	제목	공개일	러닝 타임	회차	제목	공개일	러닝 타임
1화	고3	2023.08.09.	41분	2화	부양	2023.08.09.	44분
<p>평범한 고등학생 같지만, 비밀을 감춘 봉석. 버스에서 봉석의 마음을 들뜨게 한 희수가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온다.</p>				<p>미현은 봉석의 초능력을 숨기며 살아간다. 어느 날, 의문의 사건들이 SNS에서 삭제되자 미현의 불안감이 증폭된다.</p>			
3화	원+원	2023.08.09.	41분	4화	비밀	2023.08.09.	42분
<p>우리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공통점을 알아가는 둘. 희수와 가까워질수록 봉석은 초능력을 들킬 위기에 빠진다.</p>				<p>비밀이 발각된 봉석을 집에 데려다주는 희수. 한편, 프랭크는 세 번째 타겟을 찾아 쇼핑센터로 향한다.</p>			
5화	리콜	2023.08.09.	49분				
<p>봉석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희수. 주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다.</p>							
6화	번개맨	2023.08.09.	58분				
<p>번개맨, 전계도의 과거가 밝혀진다. 국정원은 프랭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다. 프랭크는 다음 타겟에게 향한다.</p>							
7화	이방인	2023.08.09.	58분				
<p>나는 누구인가. 프랭크는 타겟을 제거하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미현의 통제에 봉석은 억눌린 감정을 분출한다.</p>							
8화	블랙	2023.08.16.	54분	9화	휴머니스트	2023.08.16.	46분
<p>1994년 안기부. 정보 분석관인 미현은 민용준 차장의 지시로 블랙 요원 두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p>				<p>서로 비밀을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두식과 미현. 두식은 민용준 차장을 속이고 작전을 계속하자고 제안한다.</p>			
10화	괴물	2023.08.2	52분	11화	로맨티	2023.08.2	51분

OTT 드라마 <무빙>의 세계관 구축 방식과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의의 403

		3.		스트	3.		
1990년, 괴물 같은 능력으로 조직을 이끌던 주원은 배신당해 도망자가 된다. 길 잃은 주원 앞에 지희가 나타난다.				주원과 대화를 나누며 지희는 조금씩 마음을 연다. 어느 날, 숙소에 돌아온 주원은 지희의 비명을 듣는다.			
12화	파트너	2023.08.30.	54분	13화	장주원	2023.08.30.	
1994년, 사라졌던 두식이 미현을 찾아온다. 민용준 차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계획과 함께.				블랙티م 해체 후, 주원은 사무직으로 전환된다. 어느 날 민차장이 나타나 블랙티م을 재건하기 위해 임무를 제안한다.			
	14화	바보	2023.09.06.	51분			
2003년, 시위에 참여한 아내가 연행되자 재만은 괴력으로 아내를 구하려 하고 그를 제압하기 위해 주원이 투입된다.							
15화	N.T.D.P	2023.09.06.	45분	16화	경계인간	2023.09.13.	
강당 사고 영상을 본 미현과 주원은 의심을 품고 정원고로 향하고 계도는 봉석과 희수를 미행하는 준화를 발견한다.				교직 생활이 어떠셨나요. 미현의 물음에 일환은 과거를 돌아본다. 계도는 준화를 따돌리기 위해 도로를 질주한다.			
17화	각성	2023.09.13.	39분	18화	남과 북	2023.09.20.	
봉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희수가 준화에 게 공격당한다. 희수를 구하기 위해 봉석은 각성한다.				사라진 두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미현이 두식의 행방을 묻자, 덕윤은 북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19화	결전	2023.09.20.	45분	20화	졸업식	2023.09.20.	
재만의 합류로 전세가 역전되는 듯하지만, 새로운 북한 초능력자 재석의 등장으로 싸움은 새 국면을 맞는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은 부모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선다. 세대에 걸쳐 반복된 싸움은 끝날 것인가.			

<표 2> 드라마 <무빙> 각 회차 정보

<무빙>은 총 20화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단연 분량이 많은 편이며,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충분한 내용을 제공한다. 단순한 분량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공개하는 방식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 넷플릭스와 달리 디즈니에서는 시즌1 작품 전편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는다. 긴 분량을 제시하는 만큼 시청자가 충분히 인물과 세계를 파악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한다. 이는 곧 일부 공개한 뒤 매주 2~3회씩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처음에는 총 7화까지 공개한다. 이는 여타의 오리지널 드라마의 한 시즌 분량¹⁰⁾에 해당한다. 즉, OTT 플랫폼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인 ‘몰아보기(Binge Watching)’¹¹⁾에 적합하다.

가장 먼저 공개된 7화에서 1~5화는 ‘김봉석’과 ‘장희수’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한편, 6화와 7화에는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인물 ‘변개맨’과 ‘프랭크’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인물의 개별 서사를 제공하며, 기존의 서사 흐름에 유기적으로 편입시킨다. 이후 주 2편씩 공개되는데, 각 주차와 회차에서는 서사의 중심 인물이 바뀌면서 개별 인물의 서사를 제시한다. 즉, 8~9화는 ‘이미현과 김두식’, 10~11화는 ‘장주원’, 12~13화는 ‘이미현과 김두식, 장주원’이 함께 활동한 과거 서사가 일단락된다. 이후 14~15화는 근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시점이 전환되면서 ‘이재민’의 개별서사와 ‘장주원’과의 접점을 제시한다. 이후 후반부에는 중심인물과 이들을 위협하는 집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전면전이 이루어진 후 전체 서사가 마무리된다. 즉, 이러한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각 주차마다 개별성을 갖는 서사를 제시하여 각 주차의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단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각 인물의 개별 서사를 쌓음으로써 세계관을 구축해나간다.

10) 대표적인 오리지널 드라마를 본다면, <수리남>(6부작), <킹덤> 시즌 1,2(각 6부작), <오징어 게임>(9부작), <D.P>(6부작), <마스크걸>(7부작)이 있다.

11) 몰아보기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2편 이상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준, 「드라마 시리즈물 몰아보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및 구조적 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8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407쪽.



<사진 1> 시즌2 예고 장면

<무빙>은 선보인 20화만으로도 완결된 서사를 이룬다. 특히 안기부/국정원에서 초능력자들을 관리 감독하며 사건의 배후에 있던 민용준이 김두식에게 살해당하면서 일단락된다. 그러나 작중 곳곳에 후속작을 예고하는 장면을 배치해두는데, <타이밍>의 중심인물 김영탁이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쓰는 장면과 장주원에 의해 죽은 줄 알았던 프랭크가 살아있다는 것, 민용준을 대신하여 자리에 오른 마상구,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신혜원이 국정원 고위직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인물과 또 다른 사건이 있음을 암시한다. 마블에서 개별 작품 마다의 연계를 위해 쿠키 영상을 활용한 것처럼 <무빙> 역시 짧게 지나치는 장면을 통해 세계관 확장을 유도한다.

드라마 <무빙>은 OTT 플랫폼에 적합한 한국형 히어로물 장르의 세계관 구축 및 확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히어로물'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이하 MCU)'는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CG 기술을 활용하여 원작 코믹스보다 '슈퍼 히어로'의 강인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성

공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작품은 개별성을 가지며¹²⁾ ‘쿠키 영상’을 비롯한 유기적인 요소와 이를 총체적으로 하나로 엮어내는 <어벤져스>과 같은 작업물을 통해 세계관 형성 및 확장에 성공했다. <무빙>은 이와 비교했을 때 자본의 규모나 CG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OTT 플랫폼과 드라마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슈퍼 히어로 인물 제시와 세계관 구축을 이루어냈다.

3.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실체

2023년 8월 9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무빙>은 흥행에 성공하며 시즌1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시즌2를 암시하는 장면을 배치한 것과 강풀의 원작 웹툰이 이미 확장된 서사가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후속제작을 예상할 수 있다.¹³⁾ <무빙>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슈퍼 히어로물’이라는 장르에 있다.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히어로’물은 낯설거나 미지의 영역은 아니다. “한국은 에스에프(SF)의 불모지였다”¹⁴⁾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드라마 <고요의 밤>은 흥행을 떠나 그 자체로 시

12) 이는 오늘날에는 다른 양상을 띠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세계관이 확장될수록 각 작품의 개별성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개별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이전 작품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흥행이 이전과는 달리 주춤한 것은 관객이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할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도 증가와 관련된다.

13) 이와 관련해서 강풀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고민이 깊다. 그리고 만화를 먼저 연재할 지, 드라마로 바로 후속을 쓸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라 쉽게 결정이 힘들다. 제작진에게는 두달 동안 안식월을 달라고 했는데, 제작진은 독촉하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후속작을 내놓으라고 독촉한다”라고 웃으며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후속작과 관련해) 결정할 예정”이라 말한 바 있다. “강풀 작가” ‘무빙’ 시즌2? 가능성은 있지만... 난색 표한 이유 (‘히지웅쇼’), 조선일보, 2023년 9월 27일 수정, 2024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broadcast/2023/09/27/GY7CJWAHLUINT3RLVLWTEO7ZUM/>.

14) “한국 SF 전성시대’ 왔지만... ‘세련된 짜깁기’는 역부족,” 한겨레, 2022년 11월 03일 수정, 2024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65532.html.

사하는 바가 있다. 그에 비해 소위 '히어로'는 OTT 플랫폼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다만, 문제는 '히어로'라는 개념이 폭넓게 다루어진 것에 있다. 요컨대, 약자를 보호하고 악에 대항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로 폭넓게 다루어졌다.

<무빙>의 등장은 폭넓게 다루어져 왔던 히어로물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한다.¹⁵⁾ 즉,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변별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히어로'와 '슈퍼 히어로'에 있다. 악에 대항하여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히어로는 특수한 능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지닌 인간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반면, '슈퍼 히어로'는 초월적인 힘을 동반한다.¹⁶⁾ 그에 따라 <무빙>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슈퍼 히어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무빙>이 '슈퍼 히어로'에 부합하는가에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소략하게 살펴본다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정의로운 인물이 악당을 물리치고 시민을 보호하는 서사를 떠올릴 수 있다. 다만, <무빙>에서는 이에 비껴가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인물과 악'의 대립 구도와 관련된다. '악'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도덕적 관념과 그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있다. <무빙>에서는 초능력자 간의 대립을 그리는 한편, '악인'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무고한 시민들을 구출하는 서사 역시 상당 부분 축약된다. 드라마 후반부에 비행 능력을 각성한 '봉석'이 노란색 우비로 정체를 숨긴 다음 위기의 시민을 구출하는 전형적인 슈퍼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배경적인 측면에 그친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모호한 지점을 가린 다음 '한국형 슈퍼 히어로'라고 통칭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의미는 불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슈

15) "[스경연예연구소] '무빙', 마블과 다른 '한국형' 히어로의 재정의," 스포츠경향, 2023년 09월 11일 수정, 2023년 10월 1일 접속,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9111730003&sec_id=540201.

16)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캐릭터 원형 유형 연구」, 『현대영화연구』 43, 2021.

퍼 히어로'의 개념과 견주어 본 다음 도출되는 변별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국형 슈퍼 히어로'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뺀 '슈퍼 히어로'의 개념을 짚어본다면, 미국의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두 출판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표이며, 초인적인 능력으로 악과 맞서 싸우는 영웅을 일컫는 한편, 미국식 신화의 오락적 측면과 아울러 이데올로기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작동한다.¹⁷⁾ 리처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에 따르면 미국식 슈퍼 히어로 장르의 서사적 특징을 7가지 (①Lost Parents/②The Man-god/ ③Justice/④The normal and superpowered/⑤The secret and identity/⑥ Superpowers and politics/⑦ Science as magic)로 분류하는 한편,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긍정적 가치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묻어낸 이야기”¹⁸⁾로 정리한다.

마크 웨이드는 슈퍼 히어로의 서사적 특징을 ①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②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온갖 악들로 타락했고 ③외로움과 결핍감 등으로 고뇌하지만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역경을 물리치고 초월적인 힘을 활용하여 최후의 승자가 된다.¹⁹⁾ ‘(미국식) 슈퍼 히어로’의 핵심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한편, 악과의 대립을 통해 결국 ‘일상’을 지키는 것에 있다. 다만, 이러한 서사 과정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끈다. 다시 말해 거대한 악에 의해 비롯된 초월적인 인물이 당면하는 일상 파괴의 위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징적 질서 체계 자체를 뒤흔든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²⁰⁾라는 맥

17) 현승훈,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영상미학적 특성 연구-영화<전우치>의 플롯구조와 인물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0, 한국콘텐츠학회, 2013.

18) R. Reynolds, *Super Heroes: A Modern Mythology*,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1994.

19)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 히어로 미국을 말한다』, 잠(ZAM), 2010.

20)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통

락에 의거해 일상을 위협하는 악을 물리치는 한편, 초월적인 인물 역시 국가 상징적 질서 체계 안에 포섭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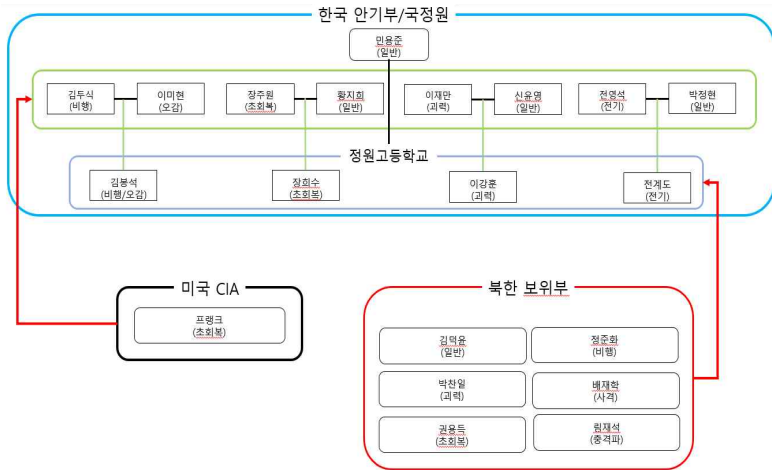
<무빙> 또한 앞서 제시한 슈퍼 히어로의 특징, 즉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거나 결핍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 이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무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매우 협소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 곧 무고한 시민이 초능력자들에 휩쓸려 희생당하지 않는다. 주어진 세계관내에서 초능력자들만의 협소한 세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따라서 무고한 시민들은 사건에 휘말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한다.

따라서 <무빙>에서는 기존의 슈퍼 히어로에서 보여주었던 통상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다. 상징적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무고한 시민을 구출해내는 것과 달리 <무빙>에서는 그 힘은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의 범주가 대폭 축소한다. 달리 말하자면, 슈퍼 히어로에서 초월적인 힘은 정의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 발산된다면, <무빙>에서는 그러한 대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자면 <무빙>의 초능력자들은 그러한 대의에 의해 희생된 자들이며, 이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기존 슈퍼 히어로 서사에서 대립 구도는 대의가 곧 선이며 이를 위협하는 적은 곧 악으로 이루어진다. 대의의 승리가 곧 선의 승리이고 적의 패배가 곧 악의 패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의 영역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포함시킨다. 반면, <무빙>에서는 선과 대의의 불일치, 악과 대립하는 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작중에 등장하는 초인들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진 초월적인 힘으로 비롯된 '괴물성'에 있는 것이 아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대의'에 그 원인이 있다. 국가의 안녕을 빌미로 국가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임무는 그 자체로 '선'과의 거리가 발생한다. 그 말은 곧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위대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면 능력 사용의 결과가 곧 선과 직결되는 반면, 국가를 위한 능력의 사용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뿐 선과 직결하

하는 중요한 대사이다.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로, 이를 기점으로 슈퍼 히어로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지 않는다.



<표 3> <무빙> 인물 조직도

대립하는 적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중심인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또 다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지만 그 자체로 ‘악’으로 놓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초인으로는 전반부의 미국 CIA 소속 ‘프랭크’와 후반부에는 북한 보위부 ‘기력자 부대’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명령 하에 행동이 이루어진다. 주어진 목표 외에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초인들끼리 대립하며 서로의 목숨을 빼앗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각 인물이 지닌 개별적 특성에 있기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국가 기관에 있다.

그렇다면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슈퍼 히어로와는 달리 이에 저항하는 <무빙>이 ‘슈퍼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물들이 지닌 각자의 ‘초능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초능력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슈퍼 히어로’로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초능력’이 아닌 ‘가족’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전형적인 슈퍼 히어로 서사에서 벗어나 있으며, ‘가족 서사’에 가깝다. 슈퍼 히어로물 서사에서는 초능력을 얻게 되는

계기와 과정 또한 해당 인물의 성향을 드러내므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빙>에서는 작중 전개에서 '초능력'의 유무와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루지만, 정작 그 기원에 대해서는 유전으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초능력이 지닌 인물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에 있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국가적 영웅이 아닌,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다. 그에 따라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결핍을 가족 구성원이 모여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바로 여기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빙>을 통해 한국형 슈퍼 히어로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우선 간단하게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평범함을 유지하여 일상생활 속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지닌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한국형 히어로는 고독한 존재로 두지 않는다. 미국식 히어로들에게 역시 가족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로 위치한다. 그러나 '슈퍼 히어로' 서사에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는 약점이 되며 결국 히어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히어로는 이를 계기로 외·내적인 각성을 통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악의 세력을 처단단하며 동시에 세상을 구한다. 이들에게는 큰 힘을 갖게 될수록 고독한 존재로 그려지며, 이는 높은 차원의 도덕성으로 가려진다. 히어로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는 인물이 되면서 '평범함'과는 확연한 거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빙>에 등장하는 초인들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초능력은 앞서 언급한 바 우연적인 요인으로 얻는 것이 아닌, 유전을 통해 얻는다. 즉,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받아야만 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보호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에 따라 능력을 각성하는 데 있어 가족의 희생은 필수 요건은 아니며, 고독한 존재가 아닌 평범함의 영역에 걸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강풀 세계관에 등장하는 초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다. <무빙>에서는 초인들의 세계를 중점으로 그렸지만, 원작 <브러킷> 등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협에서 구출하는 내용을 담아내면서, '가족' 구성원을 지키는 것에서 보다 발산하는 힘의 범위

가 확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초인들 간의 연합 방식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는 기존의 슈퍼 히어로와는 또 다른 변별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속작과 더불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국형 슈퍼 히어로에 대한 논의 역시 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4. 나가며

OTT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드라마 제작 방식과 그에 대한 소비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본고에서는 드라마 <무빙>을 통해 한국형 슈퍼 히어로 장르가 어떻게 세계관을 구축하고 확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 OTT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형 슈퍼 히어로 장르의 세계관 구축 및 확장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다루고자 했다.

<무빙>은 전통적인 슈퍼 히어로 장르에 한국적 요소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로서,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드라마는 특히 가족과 공동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깊이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어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무빙>이 기존 서구 슈퍼 히어로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무빙>은 고유한 스토리텔링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인해, 국제적인 히어로물 장르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전통적인 서구의 슈퍼 히어로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희생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아시아 및 글로벌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빙>을 통해 볼 때, 한국 OTT 드라마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형 슈퍼 히어로

OTT 드라마 <무빙>의 세계관 구축 방식과
'한국형 슈퍼 히어로'의 의의 413

물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한 관심과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Worldbuilding in the OTT Drama <Moving> and the Meanings of the ‘Korean-style Superhero’

Jeong, Chihun(Konkuk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how the Korean drama <Moving> was able to elicit positive responses on global OTT platforms.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wo main factors. The first factor is the effective construction of a worldview on OTT platforms, while the second explores the unique identity of <Moving> as a ‘Korean-style superhero’ drama, distinct from traditional Western superhero narratives. Through these two factors, this paper examines how <Moving> established its own genre characteristics and captured the attention of a global audience. The study explores how the worldview of Korean-style superhero narratives has been tailored to fit the global market, especially how narratives centered around family and community values have resonated with audiences, thereby presenting the elements that can lead to success for Korean dramas as global content.

Key words : OTT, <Moving>, Worldbuilding, Superhero, Korean-style Superhero, Family, MCU

[참고문헌]

■ 기본자료

디지니 플러스+, 《무빙》(2023)

■ 단행본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 히어로 미국을 말하다』, 잠(ZAM), 2010.

R. Reynolds, *Super Heroes: A Modern Mythology*,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1994.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명진, 「디지털시대 서사와 매체의 융합-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박기수,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12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6.

백경선, 「OTT 시대 드라마 변화 양상- TV드라마와 OTT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8, 한국극예술학회, 2023.

송성욱,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고소설연구』 49, 2020.

이성준, 「드라마 시리즈물 몰아보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및 구조적 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8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캐릭터 원형 유형 연구」, 『현대영화연구』 43, 2021.

현승훈,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영상미학적 특성 연구-영화<전우치>의 플롯구조와 인물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0, 한국콘텐츠학회, 2013.

“[2023 대한민국 OTT 대해부] (1) 넷플릭스 독주 속 토종 OTT ‘각축’,” Forbes Korea, 2023년 8월 23일 수정, 2023 접속,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8319>.

“오징어게임 효과…넷플릭스, 한국 월이용자 1천만명 육박,” 노컷뉴스, 2021년 11월 21일 수정, 2023년 8월 23일 접속,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02>.

“500억 대작 ‘무빙’, 효자됐다...‘디즈니플러스’ 일 이용자 14만명 ‘경충’”, 노컷뉴스, 2023년 8월 18일 수정, 2023년 8월 24일 접속, <https://www.techm.kr/news/>

articleView.html?idxno=113497.

“어벤져스처럼…한국형 히어로물 만든다,” 매일경제, 2021년 6월 10일 수정, 2023년 8월 24일 접속, <https://www.mk.co.kr/news/culture/9906146>.

“강풀 작가 ‘무빙’ 시즌2? 가능성은 있지만…난색 표한 이유 (‘히지웅쇼’),” 조선일보, 2023년 9월 27일 수정, 2024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broadcast/2023/09/27/GY7CJWAHLUINT3RLVLWTEO7ZUM/>.

“한국 SF 전성시대’ 왔지만…‘세련된 짜깁기’는 역부족,” 한겨레, 2022년 11월 03일 수정, 2024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65532.html.

“[스경연예연구소] ‘무빙’, 마블과 다른 ‘한국형’ 히어로의 재정의,” 스포츠경향, 2023년 09월 11일 수정, 2023년 10월 1일 접속,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9111730003&sec_id=540201.

투고일: 2024.07.15 심사일: 2024.08.10 게재확정일: 2024.08.10